

# DSAC Module4

## Deep Learning (3)-2

2023년 11월 18일~12월 16일

권오준

(ojkwon@deu.ac.kr)



# 신경망 성능 개선

# 과대 적합 (Overfitti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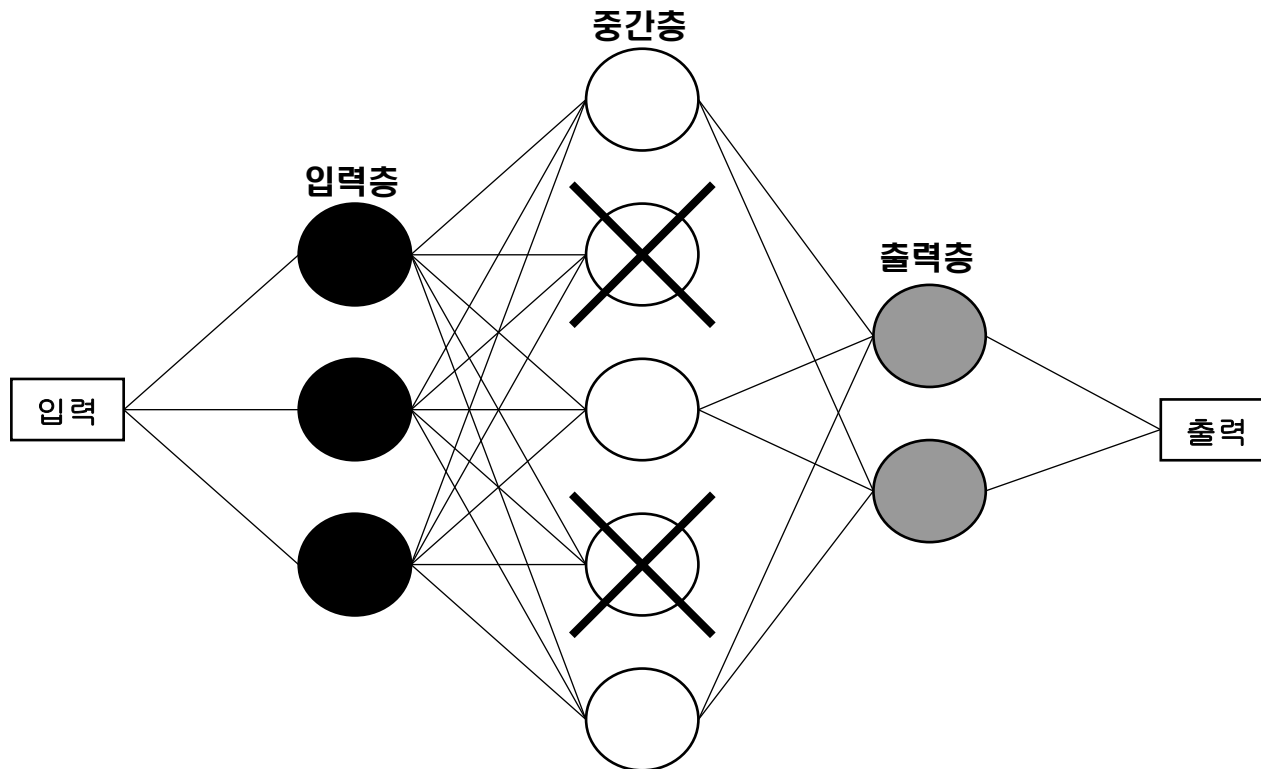
- 신경망은 파라미터 갯수가 많아서 과대적합할 가능성이 항상 높다. 훈련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을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
  - 과대적합이 발생하면 신경망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.
  - 과소적합 여부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얼마나 낮은지 (평균치 수준에 머무는지)를 보고 판단
- 과대적합을 줄이는 작업을 일반화(generalize)를 위한 규제화(regularize) 라고 부르는데,
  - 대표적인 규제화로 L2규제를 적용
    -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파라미터 값이 가능한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제한
  - 케라스에서는 `regularizers.l2()` 함수를 사용

# 드롭 아웃 (Drop out)

- 신호가 계층을 통과할 때 랜덤하게 유닛을 선택하여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 방법
- 즉, 모든 신호를 다 사용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신호의 일부를 누락시킨다
- 앙상블 효과를 얻어서 과대적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.
- 드롭아웃을 하면 입력과 출력간의 특정한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신경망이 보다 일반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
- 네트워크의 기억을 랜덤하게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. 입출력의 특별한 관계를 평준화시키고 다양한 신경망 구조를 이용한 효과(즉, 앙상블 효과를 얻어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)

# 드롭 아웃

- 드롭아웃은 학습을 하는 동안에만 적용
- 학습이 종료된 후 예측을 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유닛을 사용하여 예측



# 출력단 활성화 함수 선택

- 분류를 하는 경우 대부분 **소프트맥스** 함수를 사용
  - 특정한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을 구해준다
  - 즉, 신경망이 하나의 카테고리만 선택할 때는 소프트맥스를 사용
- **복수의 답이 가능한 분류문제**에서는 **시그모이드 함수**를 출력단에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다
  -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면 각 출력이 0~1의 값을 가지며
  - **출력들의 합은 1을 넘을** 수가 있다
- **회귀분석**에 사용될 때에는 출력단에 **선형함수**(즉, 신호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)를 사용

# 최적의 신경망 구조

- 최적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계층의 수, 유닛의 수, 배치 크기, 학습률의 설정 등이 어려운 과제
- 기본 전략 : 처음에는 구조를 간단히 출발
- 일단 동작을 확인하고 성능을 개선한다.
  - 계층이 2~3만으로도 동작하는지를 확인
  - 만일 2~3개의 계층으로 모델이 동작하지 않으면 계층 수를 늘려도 동작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.
- 입력 데이터를 간단히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
  - 예를 들어 10가지 동물 이미지를 구분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우선 몇 가지 대표적인 동물들을 구분하는 모델을 먼저 만들어보는 것

# 배치 (Batch) 크기

- 배치 크기 : 신경망이 한번에 학습하는 입력 데이터 수
- 배치 크기가 클수록 학습이 정교하고, 기울기를 정확히 구할 수 있으나 계산량이 많아진다.
  -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 메모리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다(특히 GPU를 사용할 때). 처음에는 배치 크기를 작게 16~32정도로 적게 잡고 시작
- 배치 크기가 작을 때에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지 못하므로 학습률도 작게 잡아야 한다.
  - 일단 작은 값의 학습률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학습률을 조금씩 크게 한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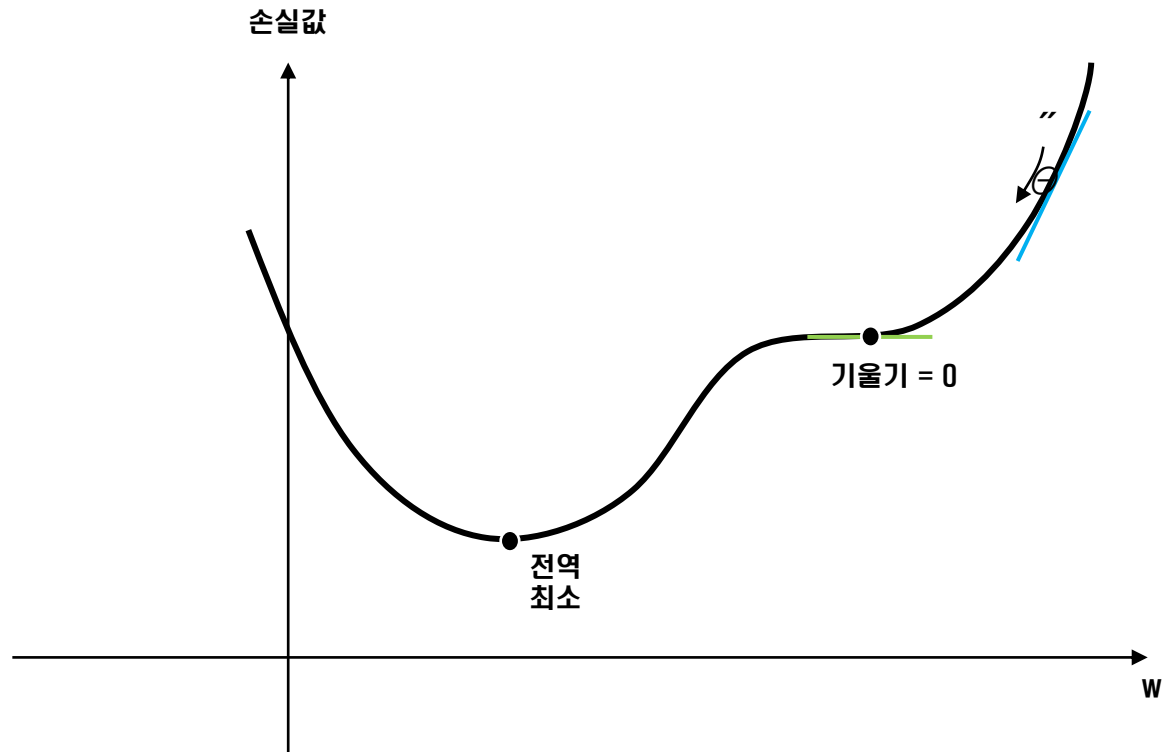
# 배치 정규화 (Batch Normalization)

- 딥러닝 학습에서 해결해야할 가장 어려운 문제
  - Vanishing Gradient Problem
- 이는 기울기 값에 비례하여 학습시킬 때 기울기 즉, 미분값이 0에 가까워지면 변화량이 매우 적어지고 이것이 앞단의 계층으로 전파되는 양이 급속히 줄어들어 학습이 잘 되지 않는 현상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치 정규화가 제시됨
  - 이는 “계층별로”, 주어진 배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규화를 다시 수행하여 **데이터의 분포**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지지 않게 하는 방식
  - 학습 시 미니배치를 단위로 정규화 : (평균 0, 분산 1)

# 모멘텀 (Momentum) 알고리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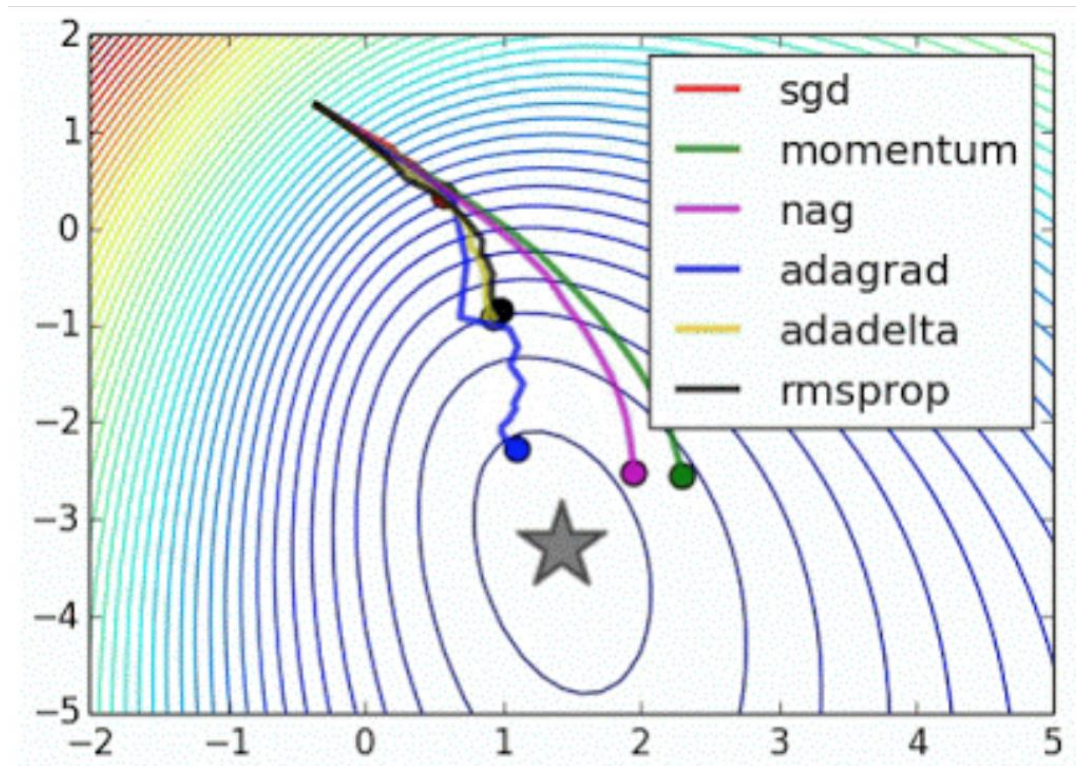
- 머신러닝에서는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SGD이 널리 사용된다.
- 신경망에서는 좀 더 정교한 방법으로 모멘텀 기법을 사용한다.
  - 모멘텀 기법이란 기울기 뿐 아니라 가속도 항을 고려하여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관성을 반영한 것이다.
  - 현재의 기울기(gradient)에 비례하는 학습을 할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기울기의 “변화량”도 반영하게 된다.
- 학습률을 적응형으로 감소하는(adaptive gradient) 방식인 AdaGrad도 널리 사용된다.
  - 이 방법에서는 학습률을 서서히 낮춘다.
  - 모멘텀 기법과 적응형 방법을 조합한 방법으로 Adam이 2015년 소개되었다.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.

# 모멘텀 (Momentum) 알고리즘



# 최적화 (Optimization) 알고리즘 비교

- 최적화 동작
  - <https://goo.gl/Pdu4uW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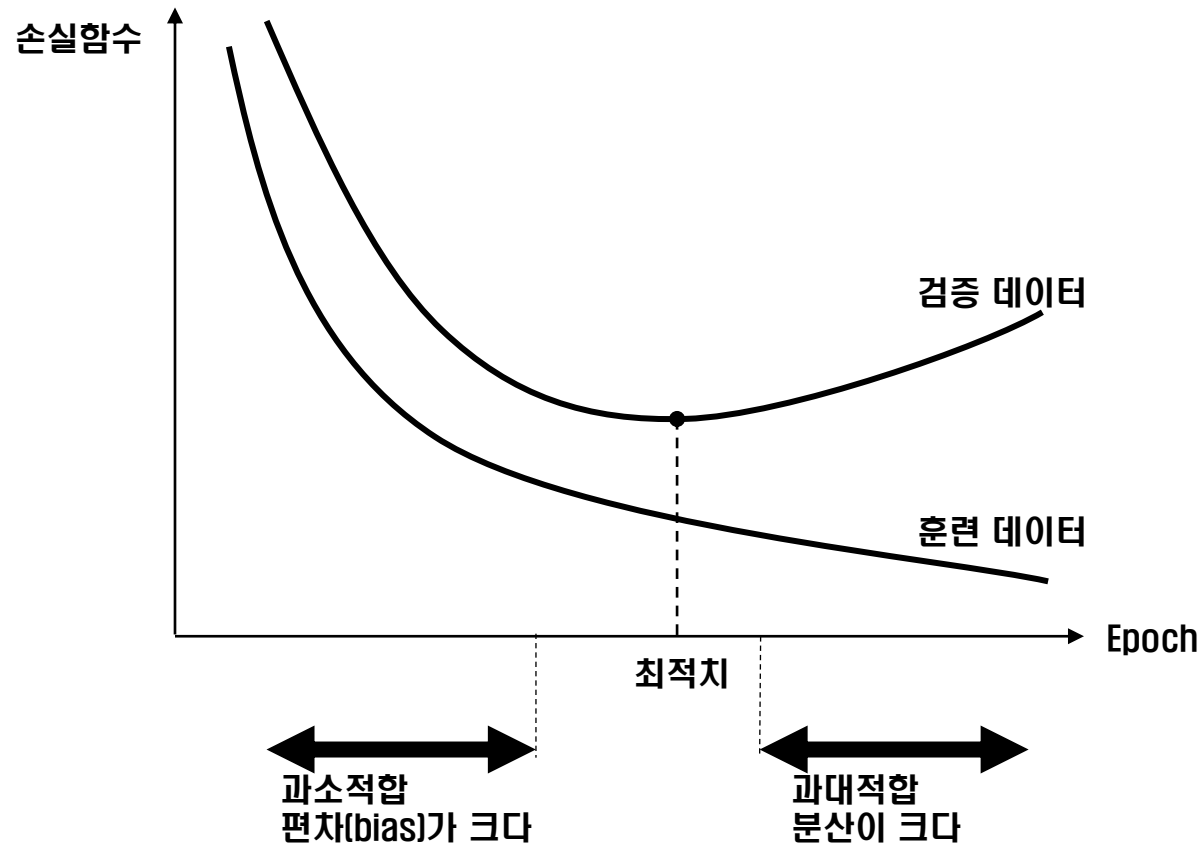
# 최적화 (Optimization) 알고리즘

- 가속도 방식을 도입
  - 지역 최소를 지나가게 하여 전역 최소를 찾을 수 있게 한다
  - Momentum
  - Nesterov Momentum
  - Adam
  - RMSPro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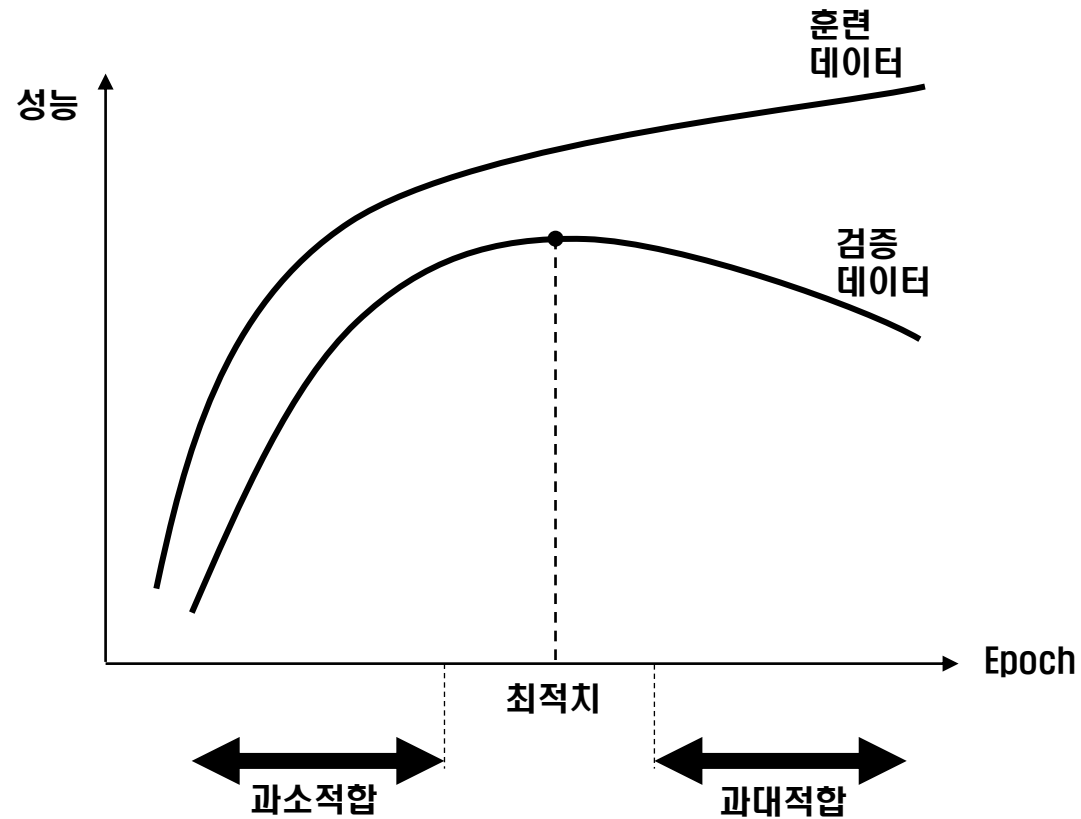
# 과대적합 검증

- 신경망은 파라미터가 많아서 과대적합되기 쉽다. 즉, 상세한 모델링이 가능하여, 훈련 데이터 수가 적으면 이 훈련 데이터의 속성을 모두 기억할 수 있어 과대적합되기 쉬운 것이다.
- 훈련데이터에 대해서는 계속 성능이 좋아지지만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능이 나빠진다면 과대적합한 것이다.
- 성능의 개선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
  - 정확도 등 최종 성능 지표를 관찰하는 방법
  - 손실함수가 줄어드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.

# 이포크 (Epoch) 증가에 따른 손실함수의 변화



# 이포크 (Epoch) 증가에 따른 성능의 변화





# 과대 적합을 피하는 방법

- 학습조기종단(early stopping)
- L1 이나 L2 규제
- 드롭아웃(dropout)
- 데이터 확장(data augmentation)
  - 훈련 데이터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효과

# 데이터 확장 (Data Augmentation)

- 과대적합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
  - 훈련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
- 훈련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과대적합을 줄일 수 있다.
- 데이터 확장이라 훈련 데이터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변형된 새로운 훈련 데이터처럼 사용함으로써 마치 훈련 데이터 수가 늘어난 효과를 얻는 것이다.
- 데이터 확장을 사용하면 여러 이포크를 수행해도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지 않게 된다.

# 데이터 확장 (Data Augmentation)

- rotation:  $0^{\circ}$  에서  $360^{\circ}$  사이에서 회전
- shifting: 랜덤하게 상하좌우로 이동
- rescaling: 랜덤하게 1.0 ~ 1.6배로 사진 확대
- flipping: 좌우, 또는 상하로 반전
- shearing:  $-20^{\circ}$  에서  $20^{\circ}$  도 사이에서 왜곡
- stretching: 1.0 ~ 1.3배로 확장

# 데이터 확장 예

- “레이블링 된”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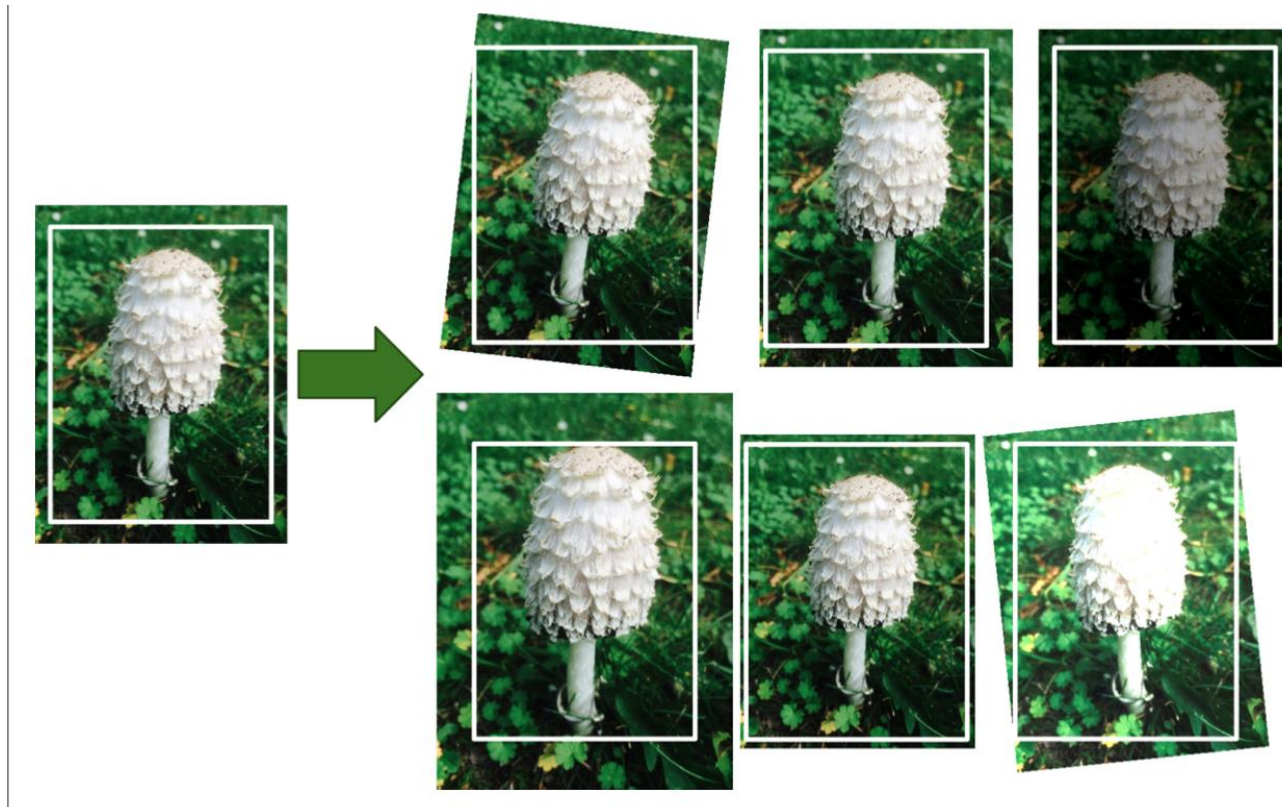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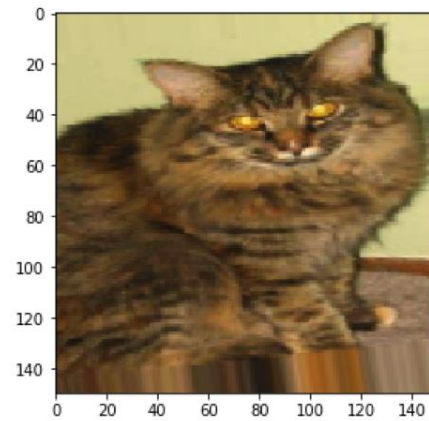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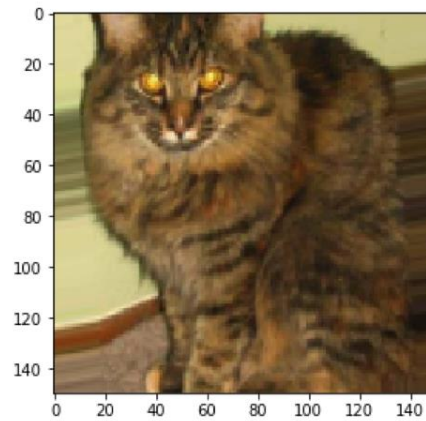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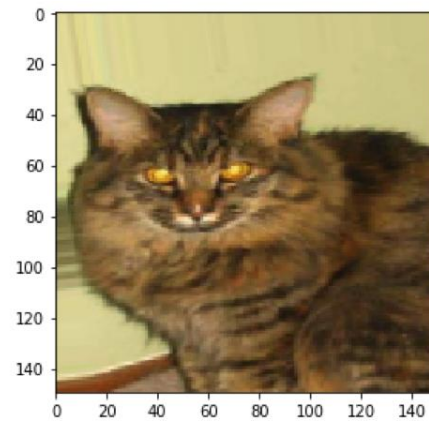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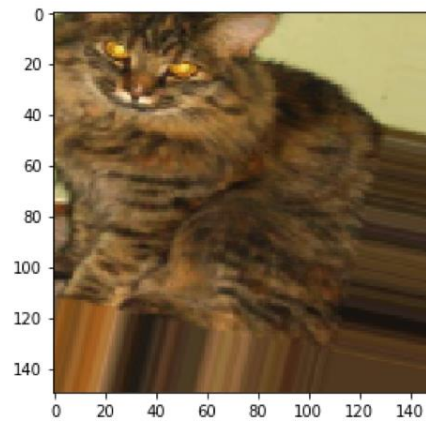


Figure 11-10. Generating new training instances from existing ones

# 데이터 확장 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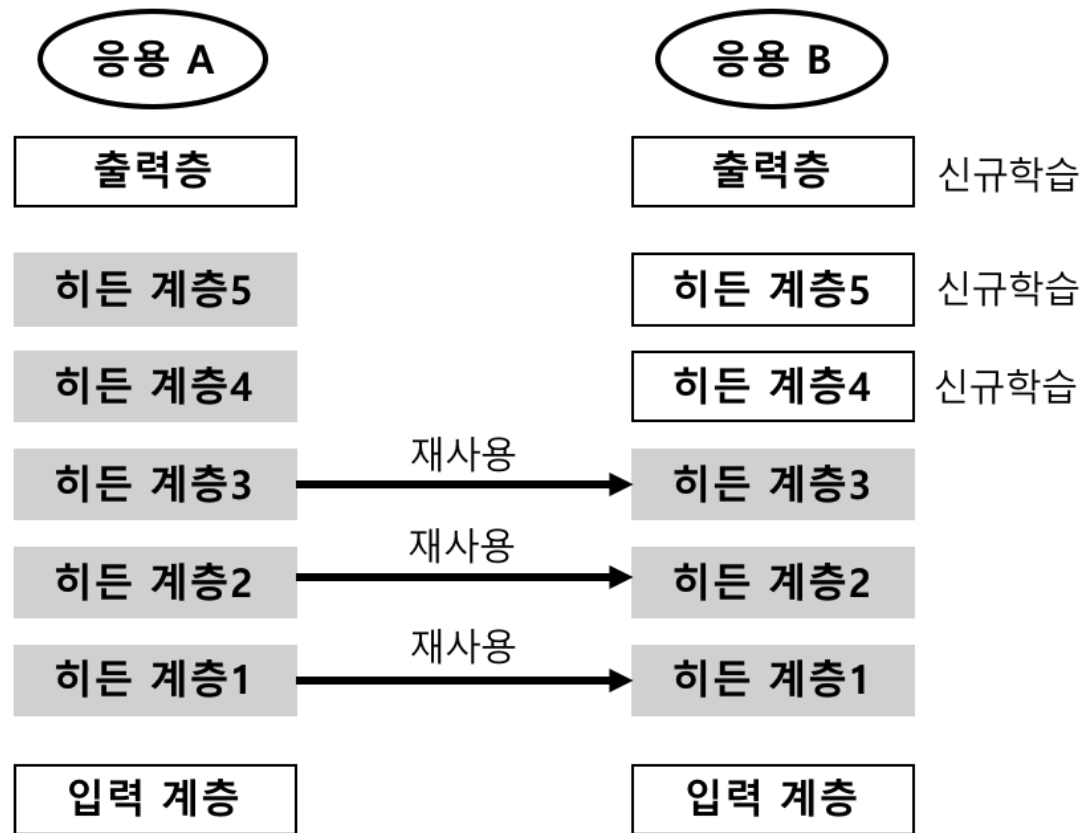


**전이 학습**

# 전이 학습 (Transfer Learning) 정의

- 전이학습이란 다른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이미 학습한 모델을 유사한 다른 데이터를 인식하는데 사용하는 기법이다.
- 이 방법은 특히 새로 훈련시킬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.
- 이미지넷에는 동물이나 일상생활의 물건들을 주로 포함하여 1000종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140만장의 사진이 있다.
- 이미지넷에는 고양이 강아지를 포함한 많은 동물 이미지도 들어 있으며, 이를 강아지 고양이 분류 문제에 사용할 수 있다.
  - 여기서는 2014년에 소개된 VGG16 모델을 사용하겠다.
- 사전학습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은 특성 추출(feature extraction) 방식과 미세조정(fine-tuning) 방식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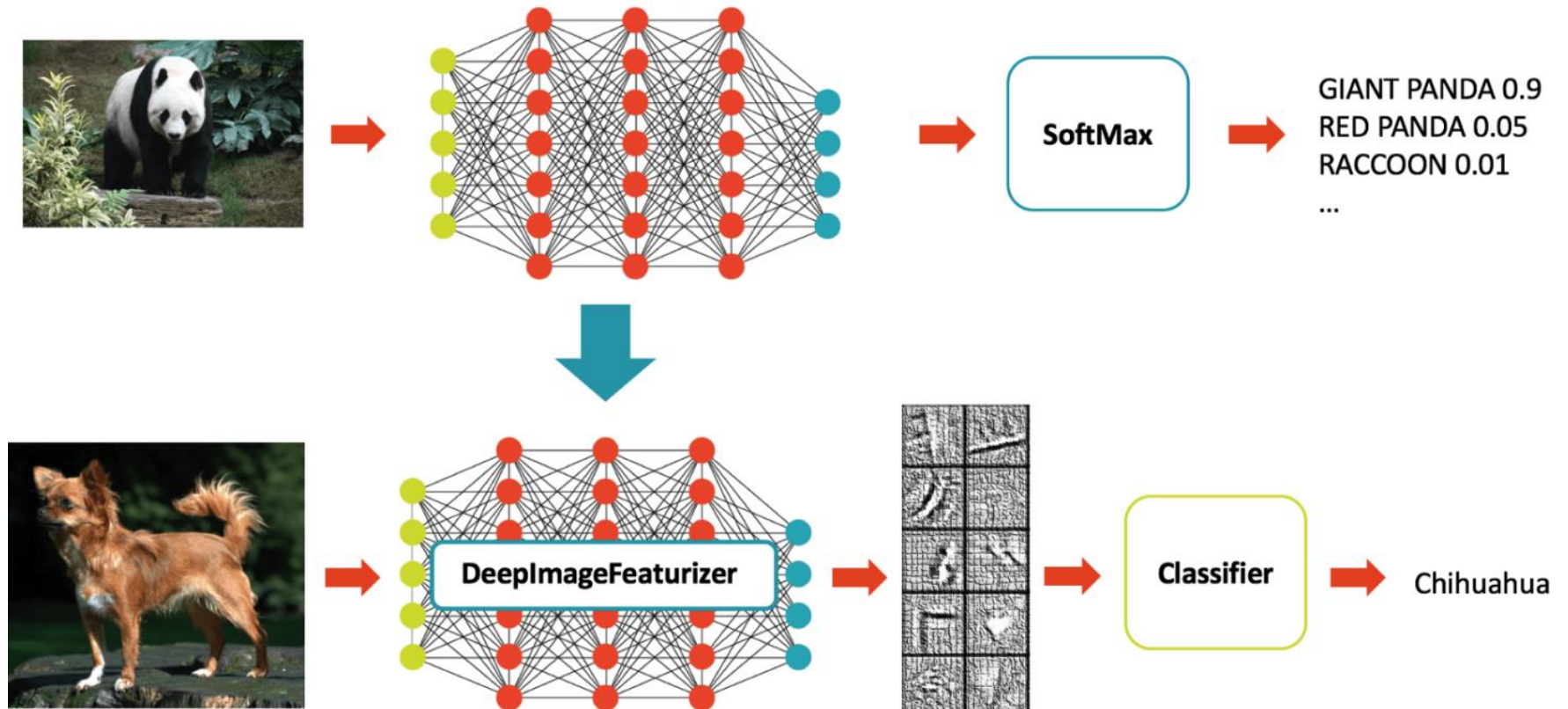
# 전이 학습



전이 학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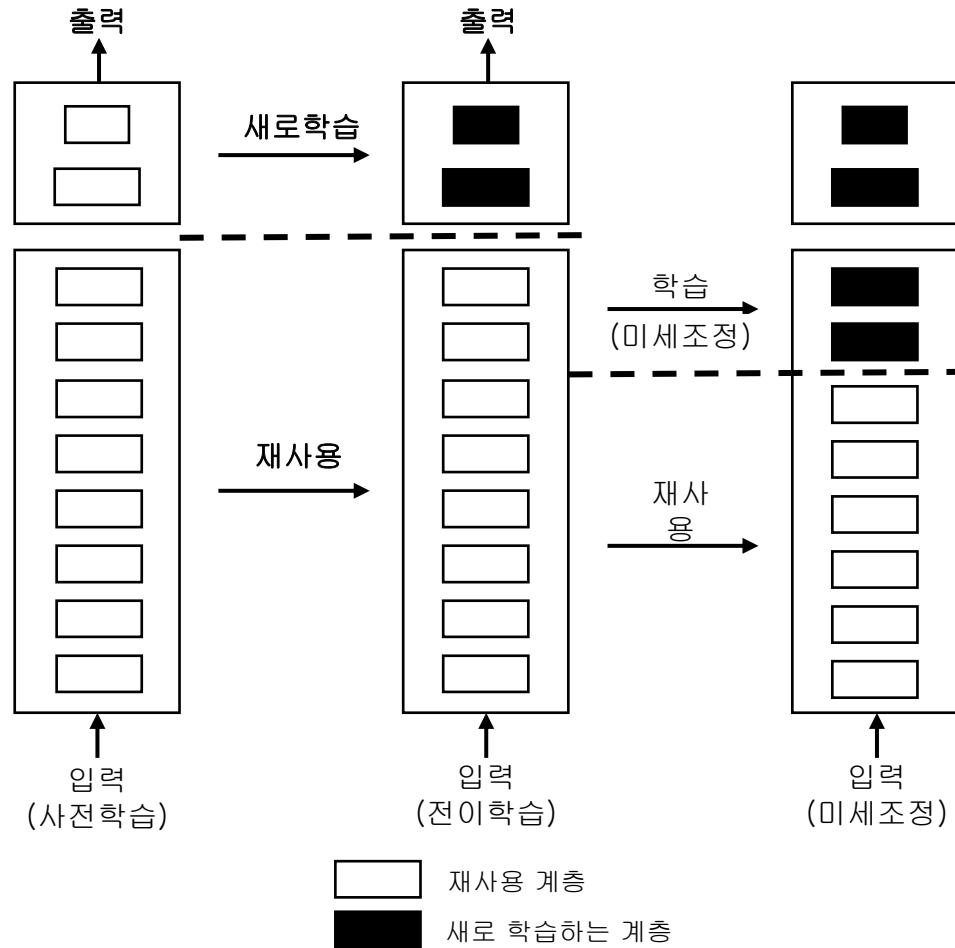
# 전이 학습



# 특성 추출 방식

- 특성 추출이란 이전의 네트워크로부터 배운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 샘플에서 추가로 흥미로운 특성들을 추출하는 것
- 이렇게 얻은 특성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분류기를 작동시키고 학습을 수행한다.
- 이미지 분류기는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풀링 계층의 조합 그리고 전결합층 분류기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.
- 컨볼루션과 풀링으로 구성된 부분을 컨볼루션 베이스라고한다
- 특성 추출 방식은 컨볼루션 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고,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에 적용하여 훈련시키는 방식이다.

# 특성 추출 방식



# 특성 추출 방식

- 컨볼루션 베이스 부분만 재사용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일반적인 학습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.
- 컨볼루션 계층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은 몇 번째 계층인지에 따라 다르다. 모델의 앞단의 계층일수록 에지, 색상, 텍스처 등 일반적인 정보를 담는다.
- 반면에 뒷 부분의 깊은 계층일수록 추상적인 정보를 담는다 (예를 들어 고양이 귀, 강아지 귀 등)
- 새롭게 분류할 클래스의 종류가 사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특성이 매우 다르면, 컨볼루션 베이스 전체를 재사용해서는 안되고 앞단의 일부 계층만을 재사용해야 한다.

# 미세 조정 (Fine tuning) 방식

- 모델 베이스 중 상위 몇개의 계층은 전결합층 분류기와 함께 새로 학습시키는 방식이다.
- 최종 분류기의 계수가 랜덤하게 초기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학습시키며 이때 VGG16 모델의 컨볼루션 베이스를 초기에는 고정해야 한다.
- 먼저 분류기를 계수를 학습시킨 다음에 (즉, 이 동안은 미세조정을 하지 않도록 상위계층의 계수를 고정시켜 두고), 그 이후에 미세조정을 해야 한다.
- 처음부터 베이스 상위계층의 계수를 같이 훈련시키면 분류기에서 발생하는 큰 에러 값으로 인해, 사전 학습된 정보가 많이 손실된다.

# 미세 조정 절차

- 1) 사전 학습된 기본 네트워크 상단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추가한다.
  - 2) 기본 네트워크를 고정시킨다.
  - 3) 새로 추가한 부분을 학습시킨다.
  - 4) 기본 계층 중에 학습시킬 상위 부분의 고정을 푼다
  - 5) 고정을 푼 계층과 새로 추가한 계층을 함께 훈련시킨다.
- 미세 조정을 천천히 수행하기 위해서 느린 학습 속도를 선택한다. 갑자기 큰 변화를 주면 사전 학습된 내용이 훼손되기 때문이다.

# 콜백(Callback)

- 케라스, 콜백 함수
  - 모델 학습을 하는 동안 중간 결과를 저장하거나
  - 조기 종료를 시키거나 할 수 있는 기능
- 콜백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fit 함수의 callbacks 인자로 넘겨줄 수 있다.

# 콜백(Callback) – 주요 함수

- History()
  - 훈련중에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를 History 객체에 저장
  - `keras.callbacks.History()`
- 모델 저장: 매 이포크마다 모델을 저장
  - 저장하는 주기(period)와 베스트 모델만 저장 등을 지정  
`keras.callbacks.ModelCheckpoint(filepath,  
monitor='val_loss', verbose=0,  
save_best_only=False,  
save_weights_only=False, mode='auto', period=1)`



# 콜백(Callback) – 주요 함수

- 조기 종료
  - 손실값, 성능 등 관찰 중인 지표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포크 실행을 종료
  - 조기 종료 조건들을 인자로 지정

```
keras.callbacks.EarlyStopping(  
    monitor='val_loss',  
    min_delta=0, patience=0, verbose=0, mode='auto',  
    baseline=None, restore_best_weights=False)
```
- 참고) <https://keras.io/callbacks/#modelcheckpoint>

실습

# 신경망 설계 – keras 주요 특징

- 모듈화 (Modularity)
  - 제공하는 모듈은 독립적으로 설정 가능하며, 가능한 최소한의 제약사항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델은 시퀀스 또는 그래프로 이러한 모듈들을 구성
  - 특히 신경망 층, 비용함수, 최적화기, 초기화기법, 활성화함수, 정규화기법은 모두 독립적인 모듈이며,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모듈을 조합할 수 있다
- 최소주의 (Minimalism)
  - 각 모듈은 짧고 간결
  - 모든 코드는 한 번 훑어보는 것으로도 이해가능한 수준
  - 단 반복 속도와 혁신성에는 다소 떨어질 수가 있음
- 참고) [https://tykimos.github.io/2017/01/27/Keras\\_Talk/](https://tykimos.github.io/2017/01/27/Keras_Talk/)

# 신경망 설계 – keras

- 쉬운 확장성
  - 새로운 클래스나 함수로 모듈을 아주 쉽게 추가
  - 따라서 고급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표현이 가능
- 파이썬 기반
  - Caffe 처럼 별도의 모델 설정 파일이 필요없음
  - 파이썬 코드로 모델들이 정의됨

# 신경망 설계 – keras

- 데이터셋 생성하기
  - 원본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
  - 데이터로부터 train, validation, test 데이터셋을 생성
  - 이 때 딥러닝 모델의 학습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포맷 변환
- 모델 구성하기
  - 시퀀스 모델을 생성한 뒤 필요한 레이어를 추가하여 구성
  - 좀 더 복잡한 모델이 필요할 때는 케라스 함수 API를 사용
- 모델 학습과정 설정하기
  - 학습하기 전에 학습에 대한 설정을 수행
  - 손실 함수 및 최적화 방법을 정의
  - 케라스에서는 compile() 함수를 사용

# 신경망 설계 – keras

- 모델 학습시키기
  - 훈련셋 train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구성된 모델로 학습
  - 케라스에서는 fit() 함수를 사용
- 학습과정 살펴보기
  - 모델 학습 시 train 데이터셋, validation 데이터셋의 손실 및 정확도를 측정
  - 반복횟수에 따른 손실 및 정확도 추이를 보면서 학습 상황을 판단
- 모델 평가하기
  - 준비된 test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을 평가
  - 케라스에서는 evaluate() 함수를 사용
- 모델 사용하기
  - 임의의 입력으로 모델의 출력을 예측
  - 케라스에서는 predict() 함수를 사용

# 신경망 설계 – keras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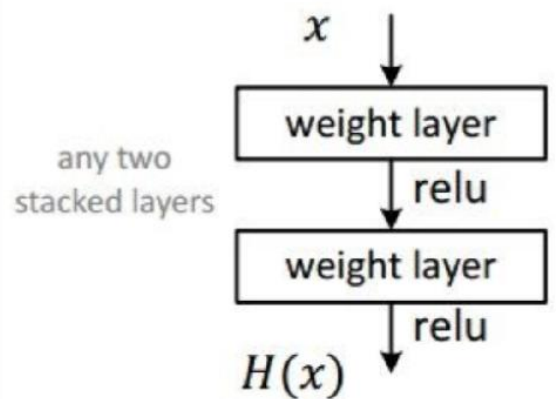
- Sequential 모형 클래스 객체 생성
- add () 메서드로 layer 추가
  - 입력단부터 순차적으로 추가
  - 각 layer – 출력 뉴런 갯수를 첫번째 인수
  - 최초의 layer – input\_dim 인수로 입력 크기를 설정
  - activation : 활성화함수 설정
- compile () 메서드로 모형 완성
  - Loss : 비용함수 설정
  - optimizer : 최적화 알고리즘 설정
  - metrics : 훈련 단계에서 기록할 성능 기준 설정
- fit () 메서드로 학습
  - nb\_epoch : epoch 횟수 설정
  - batch\_size : 배치크기 설정
  - Verbose : 학습 중 출력되는 문구를 설정,
    - \* Jupyter Notebook 사용시 verbose=2로 설정, progress bar 나오지 않도록

**Q & A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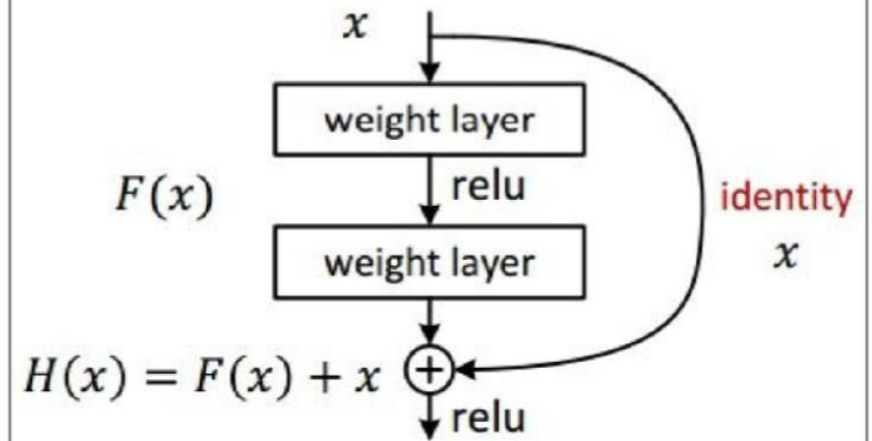


# ResNet

- Plain net



- Residual net



# 고양이 강아지 구분

- 고양이와 강아지 이미지를 구분하는 예를 소개하겠다.
- 이러한 분류에 MLP 모델을 사용하면 성능이 나쁘게 나온다.
- 데이터는 아래 Kaggle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  
<https://www.kaggle.com/c/dogs-vs-cats/data>
- 캐글에서 원래 제공하는 데이터는 25,000 장이나 여기서는 2천 장의 사진만 사용하겠다.
- 적은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신경망 과대적합이 발생하기 쉽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확장(augmentation)을 사용한다
- 전이학습을 소개한다.
  - 전이학습을 사용하면 훈련 시간도 줄이고, 훈련 데이터도 적게 필요하고, 분류 성능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.

# CNN을 이용한 MNIST

- MLP를 이용한 MNIST 숫자 인식 프로그램을 소개했었다.
  - 간단한 구조의 MLP를 이용한 MNIST 인식에서도 인식률이 97.8%의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주어진 샘플 이미지가 잘 정리되어서 크기와 위치가 모두 균일했기 때문이었다.
-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미지 (즉, 숫자의 위치와 크기가 랜덤한)에 대해서도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CNN을 소개하겠다.
- CNN의 가장 큰 특징은 입력 신호에 여러 가지 필터(커널)를 적용한다는 것이다.
  - 이미지 처리의 경우 보통 3x3 크기의 작은 필터를 적용한다.
  - 예를 들어 붉은 색을 찾는 필터를 통과시키면 입력 이미지에서 붉은 색이 많은 부분을 찾아내고, 대각선 성분이 있는 곳을 찾는 필터를 통과시킨면 대각선 성분의 크기에 비례하는 출력은 얻는다.